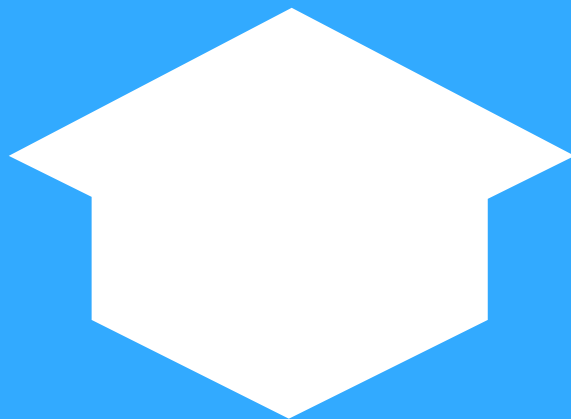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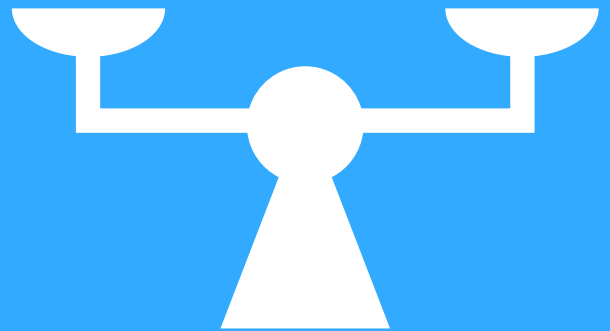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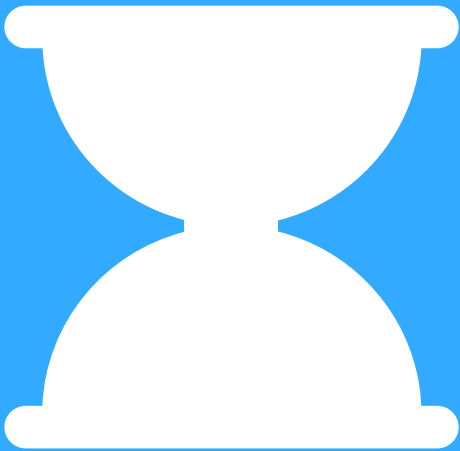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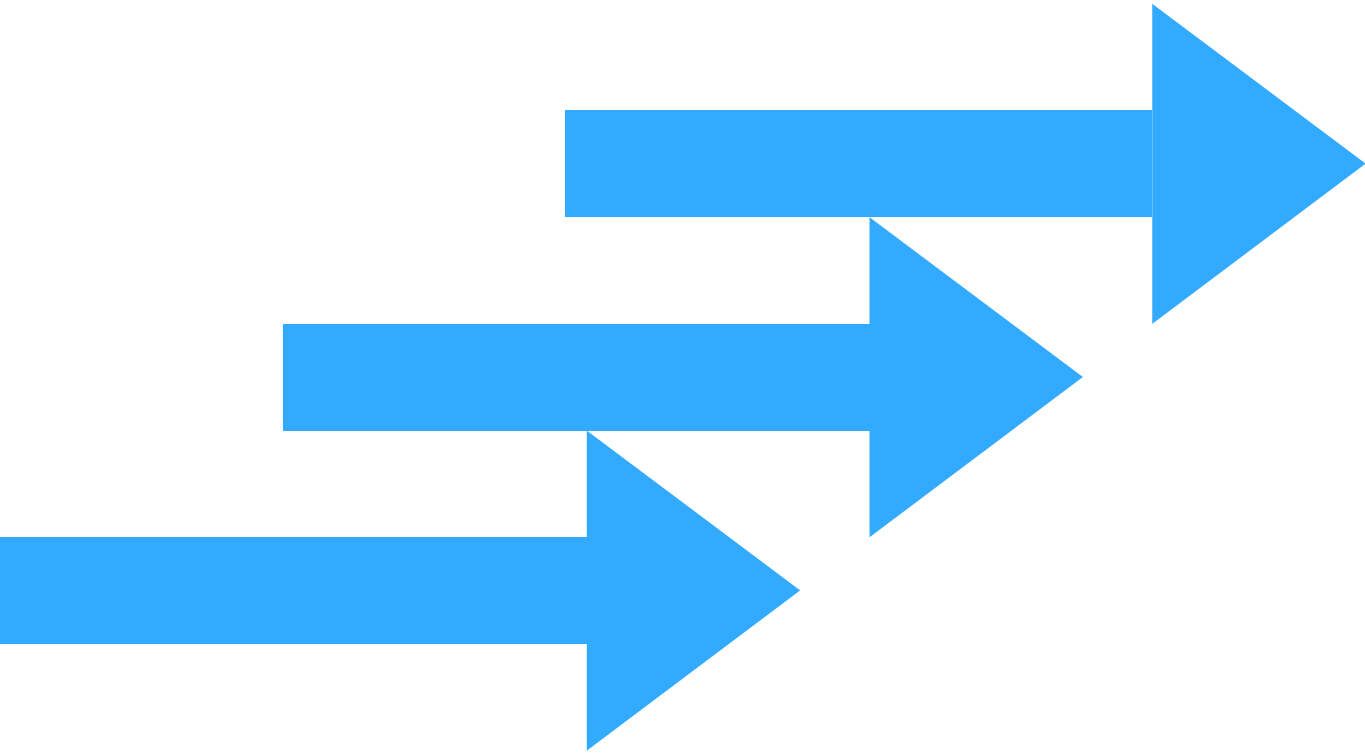
리포트/일

WORKING TIME



HR TREND REPORT
wanted

일하는 시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리포트 일>은 바로 지금의 일 이야기를 담은
HR 트렌드 리포트 시리즈입니다.
'대이직시대'를 주제로 한 1편도 함께 만나 보세요.

[보러 가기](#)

원티드의 경험과 데이터를 담은 HR 트렌드 리포트
<리포트 일>, 그 두 번째 주제는 '근로시간'입니다.
올해 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개편안을 두고 오가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 매일 일상적으로
보내는 일하는 시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앞으로 우리의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변화할지 힌트를
얻기 위해 원티드 유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얼마나 일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했고, 그 결과를 정리해 <리포트 일>로
엮어냈습니다. 이번 리포트가 '얼만큼 일할 것인가?'는
물론,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문 조사 기간: 2023. 5. 31~2023. 6. 30

Chapter 1. 응답자 정보

직무와 연차, 소속 회사의 규모 등 설문 응답자 1,700여 명에 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Chapter 2. 근로시간 현황

요즘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할까요?
주당 평균 근로시간부터 휴가(연차) 사용 실태, 근무제도
현황 등을 알아봅니다.

Chapter 3. 근로시간 관련 의견

일하는 시간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걸까요? 적정 근로시간과
야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Chapter 4. 밸런스 게임: 일하는 시간, 어떻게 보내고 싶나요?

혼자 보내는 점심시간 15분 vs. 상사와 단둘이 보내는
점심시간 2시간, 당신의 선택은? 가벼운 밸런스 게임을 통해
일하는 시간과 관련된 선호도를 알아봤습니다.



CHAPTER 1

응답자 정보

근로시간 관련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1,700여 명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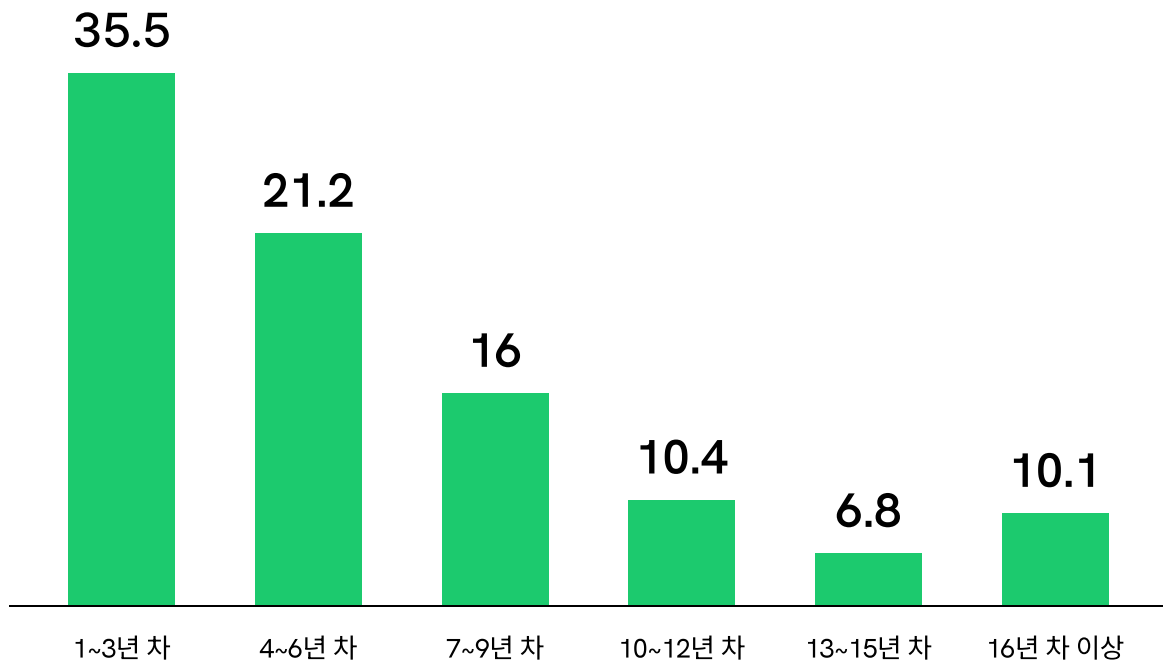
응답자 직군 구성

응답자 중에서는 개발 직군(26.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영·기획(11.4%), 디자인(11.3%), 마케팅·홍보(9.2%), 서비스·고객지원(7.2%) 등의 순서였습니다. 그밖에도 영업·제휴, 인사·총무 등 다양한 직군의 직장인들이 이번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개발	26.9
경영·기획	11.4
디자인	11.3
마케팅·홍보	9.2
서비스·고객지원	7.2
영업·제휴	5.7
인사·총무	5.3
연구개발	5.1
재무·회계	3.4
생산	3.2
기타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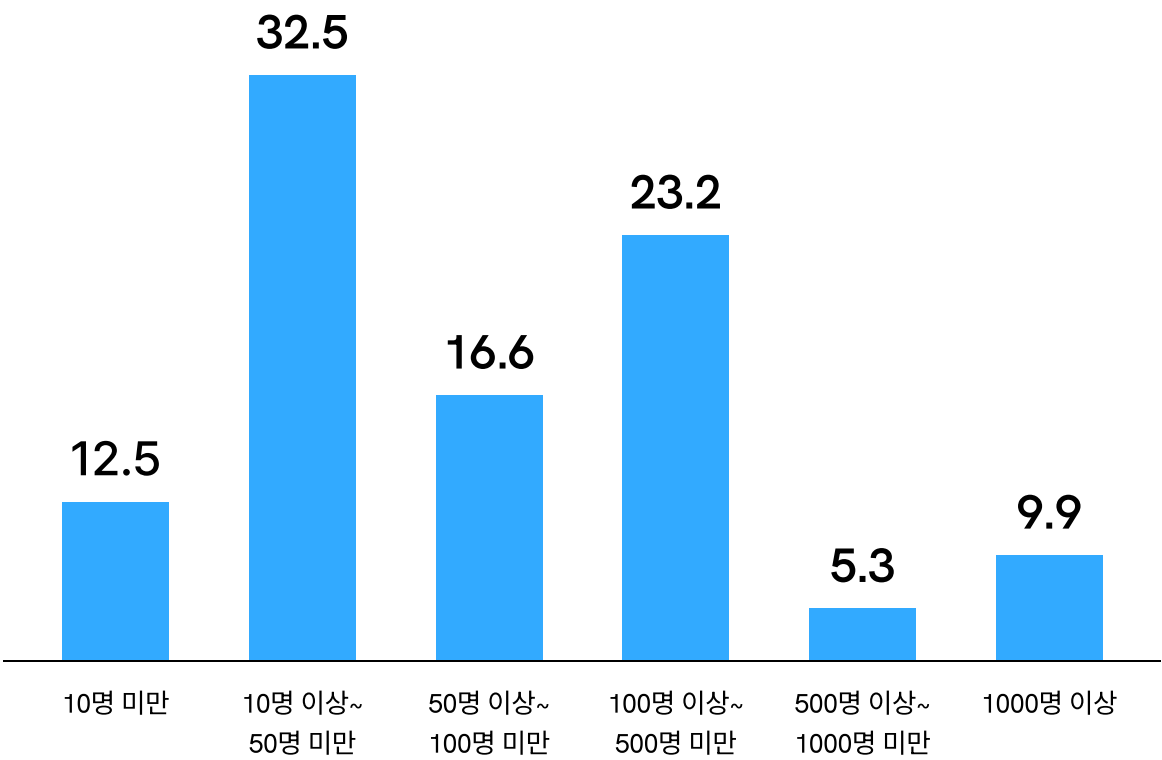
응답자 연차 구성

연차별 응답자 구성을 살펴봤을 때, 주니어부터 시니어까지 고르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년 차(35.5%)가 가장 많았고, 4~6년 차(21.2%), 7~9년 차(16%), 10~12년 차(10.4%), 16년 차 이상(10.1%), 13~15년 차(6.8%) 순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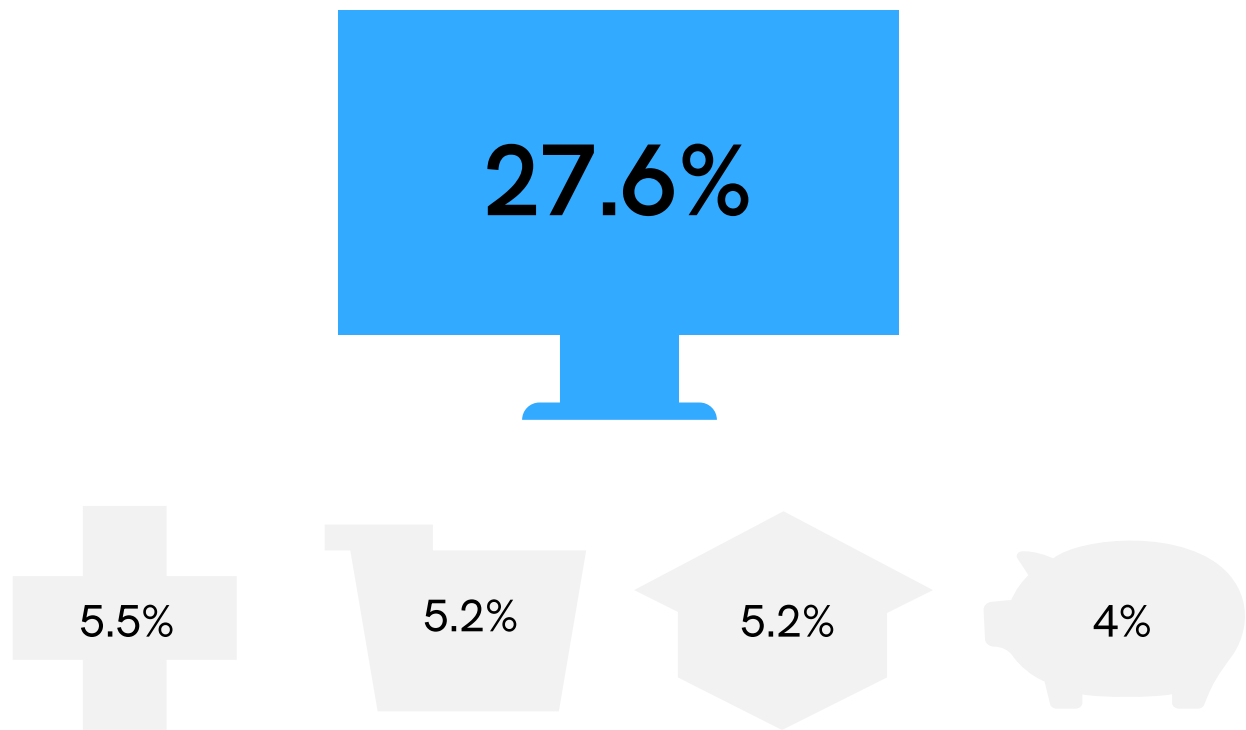
응답자 재직 회사 규모

이번 설문에는 10명 미만부터 1000명 이상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참여했습니다.
10명 이상~50명 미만(32.5%), 100명 이상~500명 미만(23.2%), 50명 이상~100명 미만(16.6%), 10명 미만(12.5%),
1000명 이상(9.9%), 500명 이상~1000명 미만(5.3%) 순서입니다.



응답자 재직 회사 산업군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산업군은 종합 IT 기업(27.6%)이었고, 헬스케어(5.5%), 이커머스(5.2%), 교육(5.2%), 금융·보험(4%) 등이 뒤따랐습니다. 1% 미만의 응답자가 속한 산업군은 모두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종합 IT 기업	27.6%	소셜 · 콘텐츠	3.5%
헬스케어	5.5%	부동산 · 인테리어	2.9%
이커머스	5.2%	푸드테크	2.4%
교육	5.2%	모빌리티	2.4%
금융 · 보험	4%	제조	3.8%
AI(인공지능)	3.5%	여행	1%
직장 · 커리어	3.5%	건설	1%
패션	3.5%	기타	25%

출처: 원티드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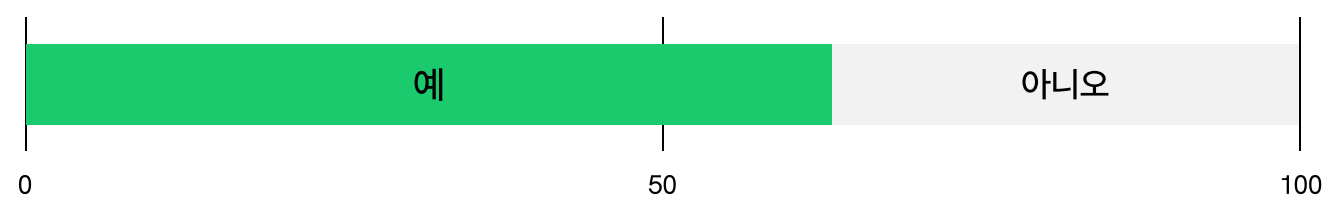
CHAPTER 2

근로시간 현황

요즘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할까요?
주당 평균 근로시간부터 휴가 사용 실태, 근무제도 현황 등을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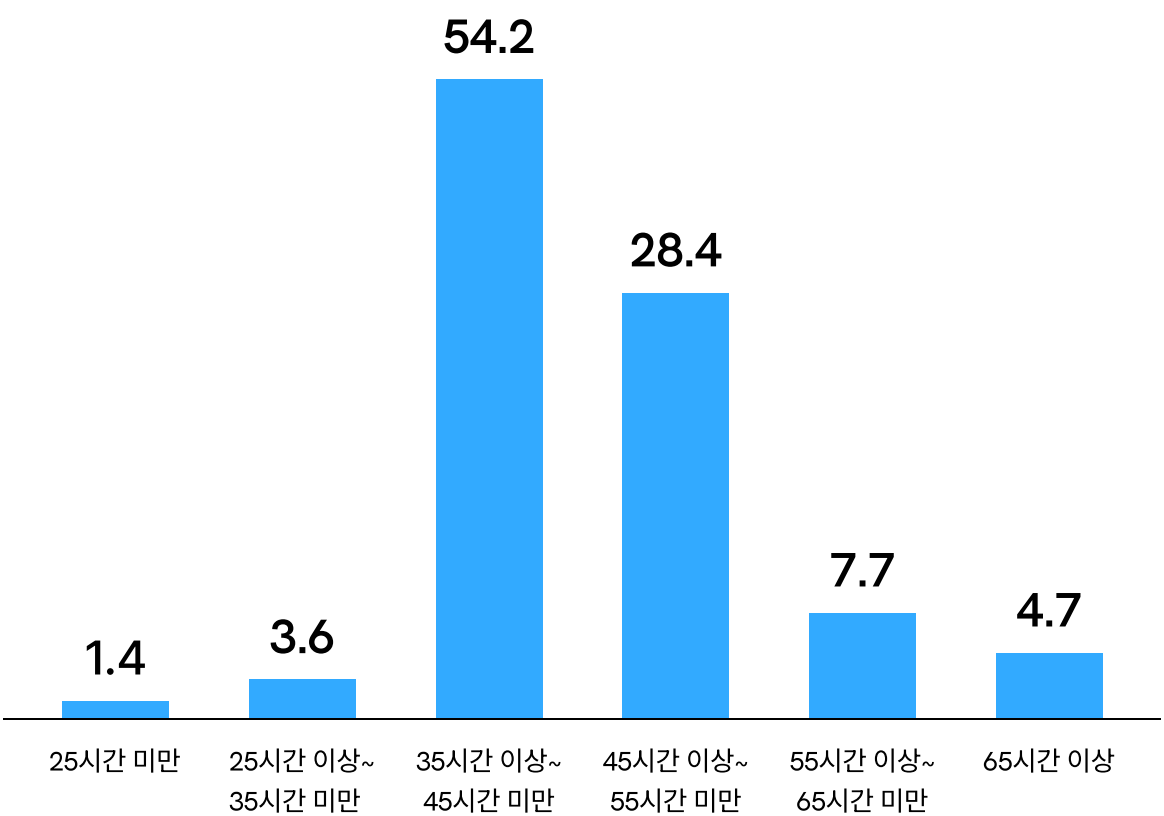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근로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있나요?

2021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로 많은 기업에서 근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근로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67.3%가 근로시간을 기록한다고 답했죠. 올해 3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만큼, 앞으로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하시나요?

응답자의 54.2%가 일주일에 35시간 이상~45시간 미만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하루에 7시간 이상~9시간 미만 일하는 셈입니다. 한편 응답자의 40.8%는 주 45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5시간 이상~55시간 미만(28.4%), 55시간 이상~65시간 미만(7.7%), 65시간 이상(4.7%) 순서였죠.



일주일 중 칼퇴하기 가장 좋은 요일은?

일주일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날과
가장 적게 일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HR SaaS 원티드스페이스의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요일별 평균 근무시간을
분석해 봤습니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날은
월요일과 화요일로, 평균 8시간 32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을 지나며 근무시간이
미세하게 줄어들다가, 금요일이 되면 눈에 띄게
줄아져 7시간 56분이 됩니다. 주말과 이어서 쉬기 위해
금요일에 반차나 반반차를 쓰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다들 '다음 주의 나에게 말긴다'는 마음으로
일찍 퇴근하기 때문 아닐까요?

요일	시간
월	8시간 32분
화	8시간 32분
수	8시간 30분
목	8시간 29분
금	7시간 56분

휴가(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나요?

모든 직장인의 권리인 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만큼 쓰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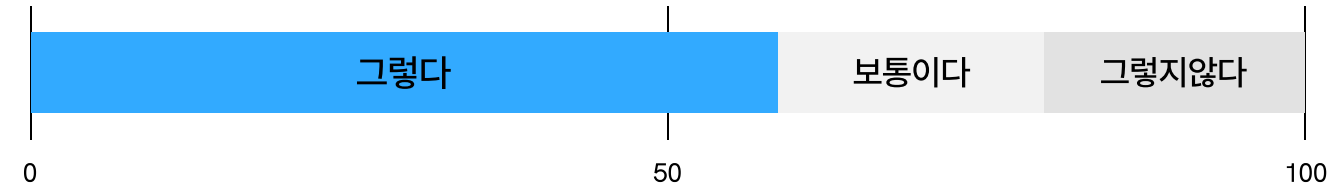
응답자 중 64.5%가 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IT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셀프 결재', '휴가 신고제' 등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원티드에서 '자유로운 휴가'라는 해시태그를 선택하면 다양한 기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9.1%에 달했습니다.

직장인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이유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휴가(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내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거나(36.4%)

또는 업무가 바빠 휴가를 쓸 시간이 없는(35%) 경우죠.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응답자는

12.1%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 기업들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등

정부 차원의 노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내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	36.4%
업무가 바빠 휴가를 쓸 시간이 없다	35%
상사 눈치가 보인다	12.1%
휴가를 쓸 수 있는 시기가 한정적이다	8.4%
기타	8.1%

*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1년에 휴가(연차)를 며칠 사용하시나요?

그렇다면 보통의 직장인들은 휴가를 1년에
며칠 정도 쓸까요? 48.4%의 응답자가
10일 이상~15일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10일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7%였죠.
법정 연차휴가가 최소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더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주어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1년에 1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는
응답자는 25.9%였는데요, 여기에는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와 법정 연차 외에 여름휴가,
창립기념일 등 회사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미만	25.7
10일 이상~15일 미만	48.4
15일 이상~20일 미만	22.5
20일 이상 ~25일 미만	2.4
25일 이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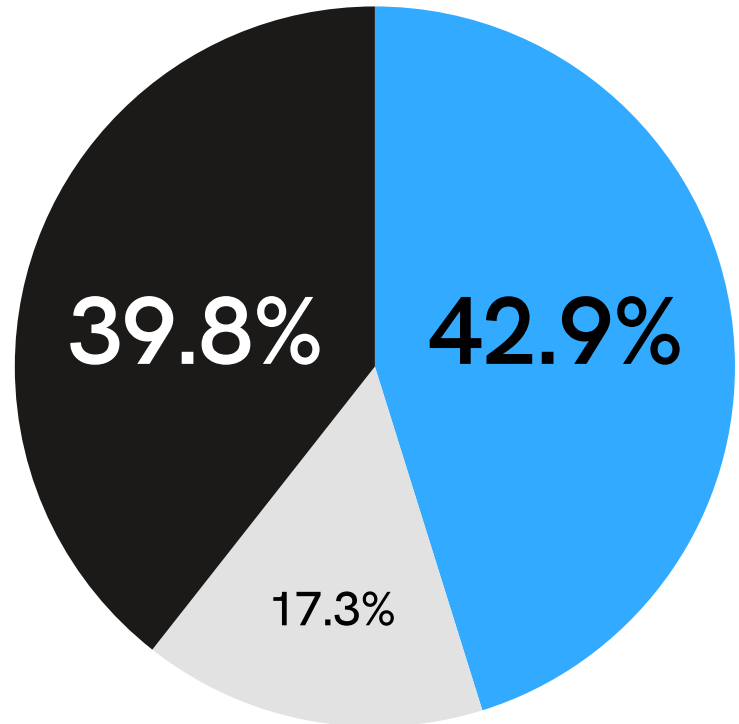


근로시간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유연근무제'입니다.

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팬데믹 시기에 유연근무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실제로 시행되기도 했지만, 엔데믹 이후에는 많은 기업들이 기존 근무제도로 회귀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이번 설문에서는 현재 얼마나 많은 회사에서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시차출근제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관련 제도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이 넘는 57.1%였습니다. 다만 17.3%가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답한 점, 그리고 42.9%가 '관련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점을 고려하면 유연근무제가 보편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아니오
-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 제도가 있고 적극적으로 시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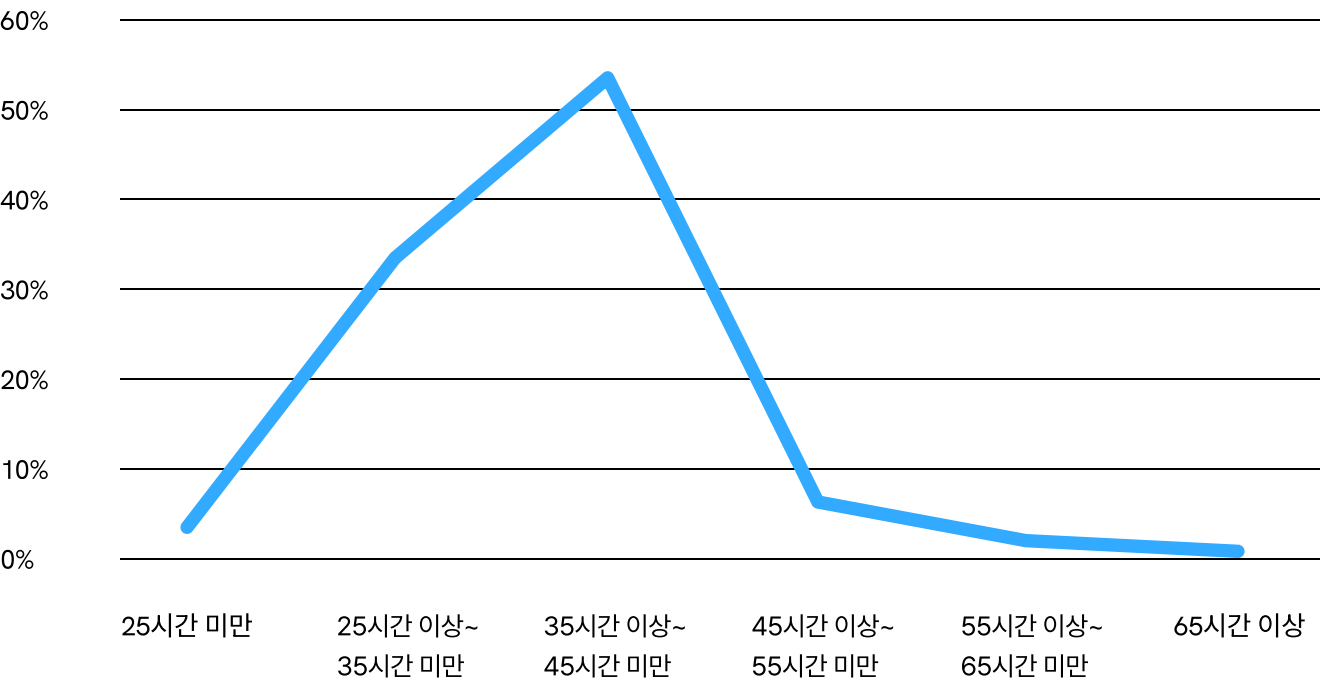
CHAPTER 3

근로시간 관련 의견

지금까지 직장인들의 근로시간 현황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봅니다.

일주일 기준 적정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서서 일주일에 35시간 이상~45시간 미만 근무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4.2%로 가장 많았는데요,
적정 근로시간 또한 주 35시간 이상~45시간 미만을 선택한 사람이 5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하루에 7시간 이상~9시간 미만 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죠.
한편 실제로 주 45시간 이상~55시간 미만 일하는 응답자가 28.4%였던 반면에,
그만큼 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8%에 그쳤습니다.
대신 2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33.3%)을 보였습니다.



출처: 원티드랩

용납 가능한 야근 시간은 하루 몇 시간인가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주된 요인은 바로 야근입니다.
하루에 얼마만큼의 야근을 감수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1시간 미만과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각각 35%, 33.9%로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습니다.
야근을 1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응답자는 15.3%였고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불가피하게 야근을 하더라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견디기 힘들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분도 용납할 수 없음	15.3%
1시간 미만	3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33.9%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8.9%
3시간 이상	6.9%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주 5일 근무제를 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주 4.5일 혹은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회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원티드에서도 '주 4일 근무'라는 해시태그가 포함된 채용 공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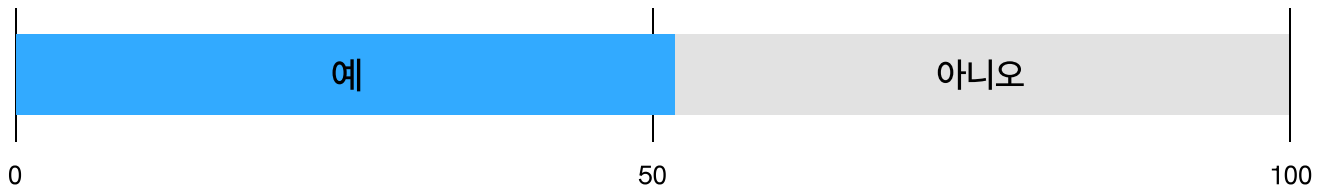
만약 모든 직장에서 근무일을 주당 하루씩 줄인다면 어떨까요? 반가운 것도 잠시, 직장인이라면 자연스레 떠오를 법한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연봉'입니다. 실제로 주 4일 근무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임금 삭감이 꼽히곤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정말로 연봉이 줄어든다 해도 하루 덜 일하기를 원할까요?

연봉이 감소하더라도 근무일이 주 1일 줄어드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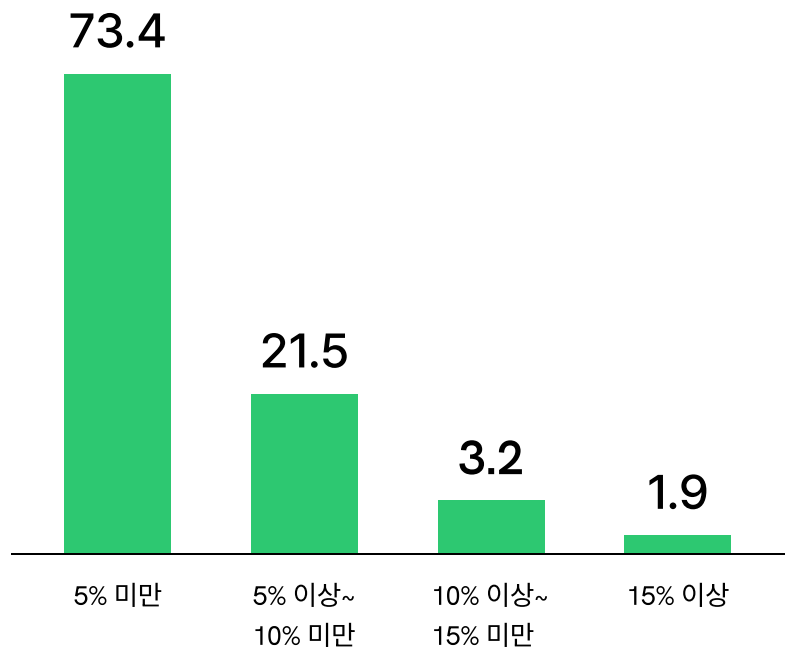
연봉이 감소하더라도 근무일이 주 1일 줄어드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51.4%**로, 근소한 차이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시 지금보다 연봉이 다소 적더라도 근무일수가 적은 회사를 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연봉 삭감을 감수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연봉 삭감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73.4%**의 응답자가 5% 미만의 삭감을 감수하겠다고 답했으며, 그다음으로 21.5%의 응답자가 5% 이상~10% 미만을 선택했습니다. 10% 이상의 연봉 삭감을 감수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5.1%에 불과했습니다.



근무일이 1일

줄어 든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쓰고 싶은가요?

연봉 삭감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근무일 1일이 줄어든다면 사람들은 그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30.2%의 응답자가 취미 활동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은 휴식(20.1%), 업무와 무관한 자기계발(15.2%), 업무 관련 학습/훈련(13.1%) 등이었습니다.

취미활동	30.2
휴식	20.1
업무와 무관한 자기계발	15.2
업무 관련된 학습/훈련	13.1
운동	11
집안일/육아	4.9
동호회/커뮤니티 활동	3.2
기타	2.3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흥미롭게도 같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평소 일하지 않는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지 물었을 때는 휴식(39.6%)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취미 활동(16.9%), 운동(15.3%), 집안일/육아(14.4%) 등이 뒤따랐습니다. 즉, 휴일이 하루 더 늘어난다면 그동안 시간이 부족해 하지 못했던 자아실현이나 자기계발에 더 투자하고자 한다는 의미죠.

휴식	39.6
취미 활동	16.9
운동	15.3
집안일/육아	14.4
업무 관련 학습/훈련	6.9
업무와 무관한 자기계발	4.4
동호회/커뮤니티 활동	1.1
기타	1.4

CHAPTER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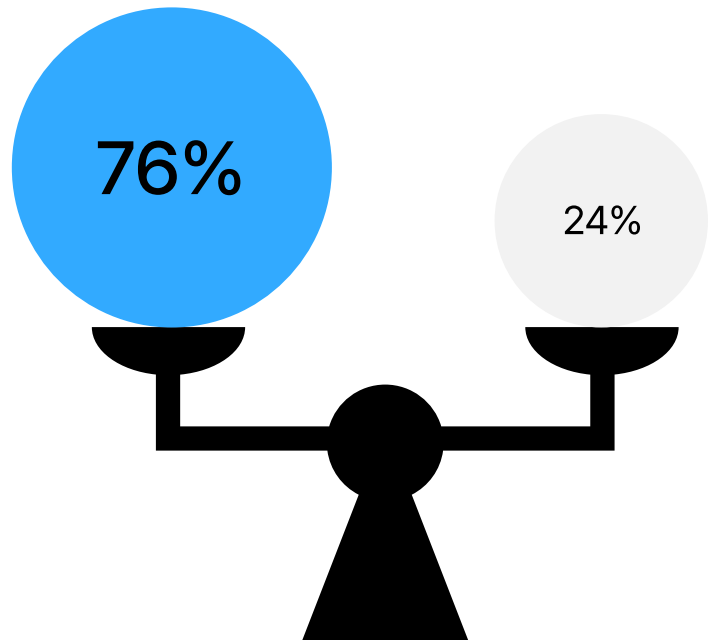
밸런스 게임: 일하는 시간, 어떻게 보내고 싶나요?

출퇴근 시간부터 점심 시간, 회의 시간까지 ...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의 순간순간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 간단한 밸런스 게임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밸런스 게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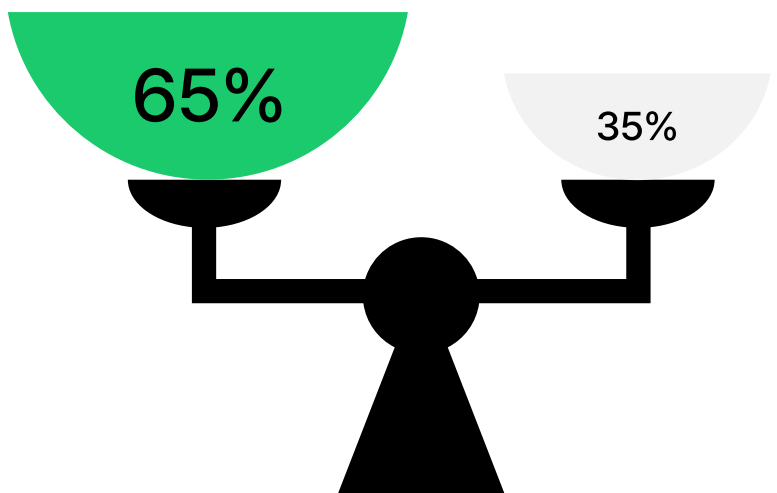
7시 출근, 16시 퇴근 VS
11시 출근, 20시 퇴근



- 7시 출근, 16시 퇴근
- 11시 출근, 20시 퇴근

밸런스 게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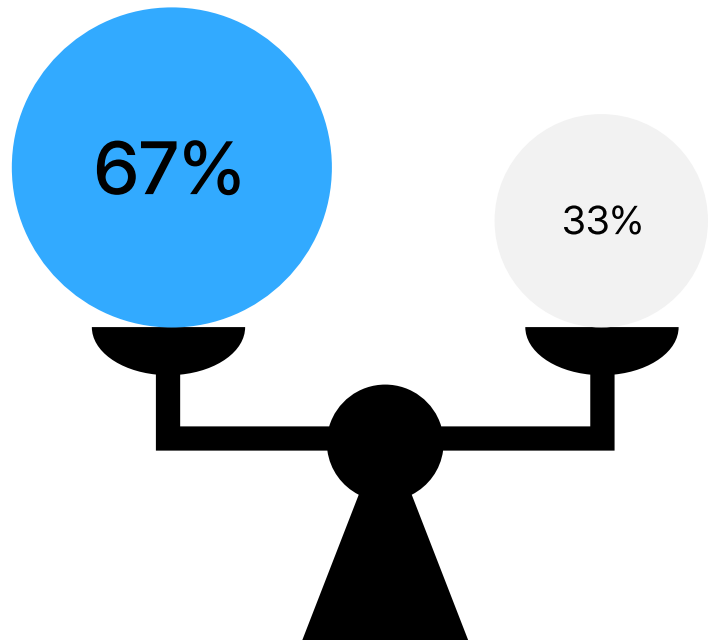
사무실 출근 18시 퇴근 VS
재택근무 20시 퇴근



- 사무실 출근하고 18시 퇴근
- 재택근무하고 20시 퇴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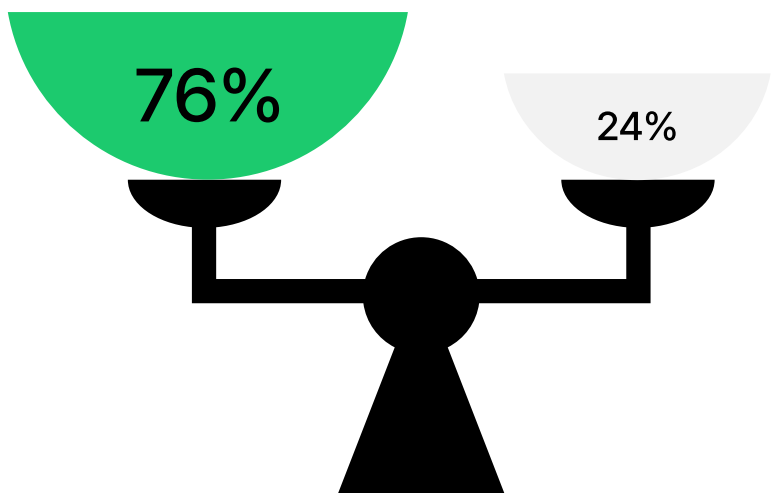
10시간씩 주 4일제 VS 8시간씩 주 5일제

- 하루 10시간씩 주 4일 근무
-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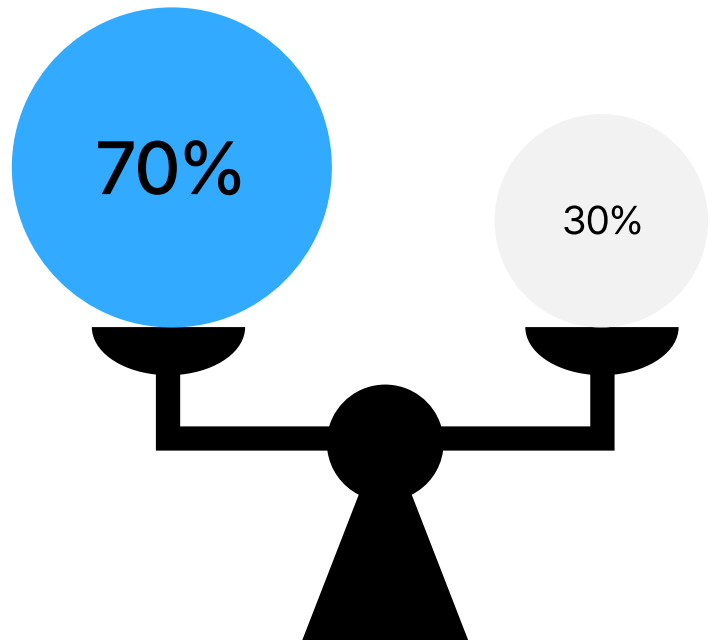


통근 15분, 연봉 1%인상 VS 통근 2시간, 연봉 10% 인상

- 통근 시간 편도 15분, 연봉 1% 인상
- 통근 시간 편도 2시간, 연봉 10%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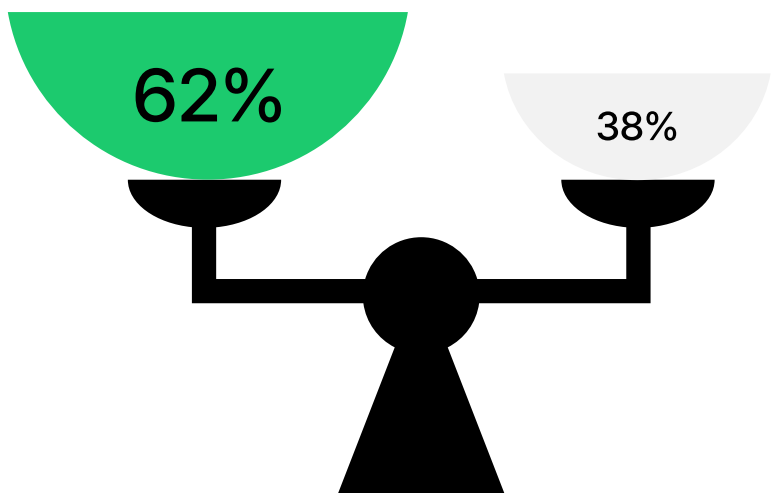


혼자서 점심시간 15분 VS 상사와 점심시간 2시간



- 혼자 보내는 점심시간 15분
- 상사와 단둘이 보내는 점심시간 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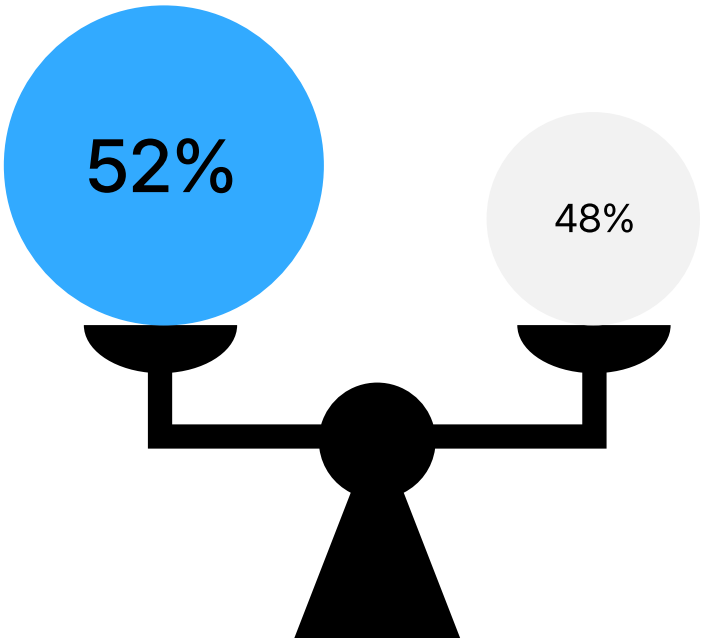
아이디어 회의 3시간 VS 업무 일지 작성 3시간



- 매일 3시간씩 아이디어 회의하기(아이디어 제안 필수)
- 매일 3시간씩 업무 일지 작성하기

한 달에 하나씩 연차 VS
한 번에 몰아서 연차

- 연차 한 달에 하나씩 쓰기
- 한 번에 전부 몰아서 쓰기



기획·글 원티드랩 IPR팀
디자인 원티드랩 크리에이티브팀

wanted